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난 37년간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 본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까지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아 친히 인도하시며 모든 섭리를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어둠이 짙은 마지막 때,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하는 GCN방송. 이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맺히는 선교의 열매들.

책 속에 녹아든 주님의 사랑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이받은 말씀을 6개 언어의 책에 담아 전하는 우림북.

만민뉴스

제906호 2019년 10월 13일(창립 특집호)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다!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태국 등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우리 교회는 지난 37년간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써왔으며, 주의 종과 선교사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해외 곳곳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어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태국에서 손수건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고 그때마다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다.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회교국 파키스탄과 불교국 스리랑카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다.

장정연 목사(콜롬비아만민교회 담임)는 지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 미란다주와 솔리아 주에서, 지난 9월 24일부터 29일까지는 아르헨티나에서 손수건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또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이성철 목사(마산만민교회 담임), 임학영 목사(본교회 부목사)를 강사로 태국의 방케 교회, 사랑의 힘 교회, 방콕 만민농야교회에서 각각 손수건 집회가 진행됐다.

각 나라 집회마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할 때 뇌종양, 말더듬, 소아 당뇨, 배꼽탈장, 교통사고 후유증, 갑상선 비대, 허리디스크, 두통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시력이 회복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특히 파키스탄 선교 시에는 반신불수로 참석한 이가 손수건 기도를 받은 즉시 일어나 걷게 되고, 걷지 못하던 아이가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어서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 또 안경 없이는 앞을 볼 수 없던 이가 안경 없이도 잘 보게 되는 등 놀라운 표적이 풍성히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베네수엘라에서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이 “성결의 복음은 베네수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함께 사역하길 희망해 110개 교회가 협력교회로 가입하는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희한한 능의 역사가 기록돼 있다.

매일 삶 속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히 13:8 ; 요일 4:16). 만민의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마음 깊이 느끼며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중 일부를 소개함으로 지난 37년간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 충만케 인도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되새겨 본다.

“45년 만에 왼쪽 귀 청력이 살아났어요”



송명진 집사
(48세, 농아인선교회)

저는 세 살 때 열병으로 왼쪽 귀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오른쪽 귀마저 정상적이지 못해 보청기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불편한 일이 너무 많았지요.

그러던 중 농아인 지인의 인도로 2016년 4월부터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농아인들이 권능의 기도를 받고 놀랍게 청력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올해 수련회를 앞두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 금식까지 하였습니다.

과연 만민하게수련회 은사집회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

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은 뒤 제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왼쪽 귀에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가 저를 부르면 뒤돌아 볼 정도가 되었지요. 세탁기의 알람음을 듣고 빨래를 꺼낼 정도로 청력이 좋아졌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송 집사를 비롯하여 올해 수련회 때만 해도 국내외 농아인들 중 40여 명의 청력이 살아났다(아래 사진). 또 김창화 집사(64, 여)는 오른쪽 귀가 50년 만에 들리게 되었고, 권옥화 집사(80, 여)는 70여 년 만에 왼쪽 귀 청력이 살아나는 등 청력 회복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비단 청력만이 아니다. 몽골의 계계수렌 집사(64, 남)는 학창시절 사고로 머리를 다쳐 왼쪽 눈의 시력이 점차 떨어지다가 결국 실명되었다. 그로 인해 우울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런데 몽골만민교회로 전도되어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를 받은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왼쪽 시력이 0에서 0.03으로 실명된 눈이 보이기 시작했고, 오른쪽 눈은 0.5에서 0.7로 좋아진 것이다.

“제가 아빠가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아카쉬 성도
(29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2013년 3월에 결혼하여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저희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첫아이를 유산한 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 검진 결과, 의사는 아내가 평생 임신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로하며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결과는 번번이 똑같았습니다. 불임클리닉에 다니느라 부채는 쌓여갔고, 아내는 절망 속에 밤낮 울며 지내다 몸이 쇠약해져 자주 쓰러졌으며,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까지 되었지요.

그러던 중 교회에 가서 기도받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그해 겨울, 델리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은 아내는 몸이 회복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뻐 가족과 친척들을 전도하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2016년 3월 중순,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연락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잉태를 위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안 돼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듬해 1월 건강한 공주님이 태어났지요. 저희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며 기쁘게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개척 이래 지금까지 불임 성도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잉태된 국내외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 목사의 기도로 나 팔관이 막혀 임신이 불가능했던 박유나 집사는 아들을 낳았으며, 결혼 후 3년간 두 번의 유산과 불임의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의 류드밀라 성도는 기도받은 뒤 임신해 아들 솔로몬을 출산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오르텐스 반돔 성도는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받은 뒤 잉태돼 아들을 낳았으며, 이후 세 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

그러나 하면 임신 중 기형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던 임규희, 윤성진, 이민경 집사, 김혜숙 권사 등은 이 목사의 기도로 정상아를 출산했으며, 임신 중 태아가 아들로 확인됐으나 딸을 얻기 소원했던 김선호, 최윤영 권사는 기도받은 뒤 딸을, 조은영 전도사는 딸을 잉태했으나 아들을 얻기 소원해 기도받은 뒤 아들을 출산하는 응답을 받았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규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오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수록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권능의 역사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

WCDN은 교파를 초월한 전 세계 기독교의사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된 다양한 사례들을 의학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다. 미국, 인도, 호주, 필리핀, 이탈리아, 노르웨이, 멕시코, 불가리아 등 각국에서 기독교의학 콘퍼런스를 개최해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된 사례들을 의학적인 자료와 함께 발표함으로써 성경이 참임을 입증해 왔다. 현재 본부를 한국에, 세계 곳곳에 18개 지부를 두고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WCDN 제15회 폴란드 콘퍼런스 시 발표된 치유 사례
“뇌출혈로 망가진 뇌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영심 권사 (57세, 2대대 15교구)



벌써 14년 전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심한 두통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좌측 전두엽과 우측 백색질에도 출혈이 있어 살 가망이 없으며, 살아나도 평생 언어장애와 반신불수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이 팔다리는 나무토막처럼 굳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저를 위해 가족이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도움으로 저는 구급차에 실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나아가 기도받은 뒤 감사하게도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뒤에는 좌측 마비가 풀렸고, 세 번째 기도받은 뒤에는 보행이 가능해졌으며 손으로 물건도 집을 수 있게 되었지요.

저는 주님께 더욱 매달리며 기도 줄을 붙들었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날로 강건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 CT와 MRI 촬영 결과, 의사로부터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을 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거대한 뇌출혈이 양측 뇌 실질 내에 발견되었으나 기도받은 뒤에는 거대한 뇌 혈종이 사라짐.

불치, 난치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은 참으로 많다. 콩고민주공화국 은군자 성도(60, 여)와 인도 리시 시리바스 타브 유아(2, 남) 등은 기도받은 뒤 에이즈를 치료받았다. 몽골 온다라흐 성도(64, 여)와 김순자 집사(74, 여)는 파킨슨병을, 독일 레베카 성도(50, 여)는 뼈암을, 조수경 집사(42, 여)는 뇌 전체에 퍼진 뇌종양을, 조경아 권사(52, 여)는 진주종 중이염을, 김혜은 자매(28)는 거식증을, 신동화 집사(61, 여)는 50년 만에 요실금을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았다.

이재진 형제(21)는 왜소증으로 중학교 졸업 당시 키가 128cm였으나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성장판이 열려 무려 38cm나 자라 최근에는 166cm까지 성

장함으로 삶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해숙 집사(58, 여)와 말레이시아 추평핑(44, 여), 인도 기타 성도(42, 여)는 어둠의 세력에서 놓임받아 기쁨으로 가득한 새 인생을 살고 있으며, 콜롬비아 앙헬리카 오소리오 성도(19, 여)는 수년 동안 고통받던 우울증을 치료받았다.

한편, 보증을 잘못 선 뒤 빚 독촉에 시달리다 아내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던 이동선 집사(80, 남)와 수많은 질병의 고통 속에 자살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권석중 집사(68, 남)는 우리 교회로 전도받은 뒤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등 불행의 절정에서 참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WCDN 멕시코 디렉터, 산부인과
다니엘 푸엔테스 박사

“만민을 만난 건 제 삶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저는 WCDN 미국 디렉터인 알만도 피네다 박사를 통해 WCDN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케냐에서 열린 제9회 WCDN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참석하였는데, 이 일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간증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전하고 있는 WCDN의 사역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 권능을 의학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었지요. 그때부터 저는 멕시코 WCDN 콘퍼런스를 준비하게 되었고, 만민과 함께하며 많은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재록 박사님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결되고 고결한 삶을 보고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뿐 아니라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이재록 박사님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 권능을 보이고 계십니다. 박사님의 삶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뤄온 사역이며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겸손하시고 영혼들을 매우 사랑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크게 나타내시지요. 박사님은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사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의 비전은 의학을 통해 다양한 곳에 지부를 만들어 WCDN 사역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학과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역을 통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이렇게 WCDN의 위대한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민과 함께 일하며 이 구원의 메시지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19)

1. 영적 기반을 다진 교회 태동기

우리 교회는 1982년 7월 25일 개척예배를 드렸습니다. 1980년대는 개척 전후로 교회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습니다. 개척 전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 기초를 쌓았습니다.

개척 멤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고 저는 교회를 이끌 목자로서 금식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개척한 후에도 기도의 불은 켜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일꾼들이 하루 5~6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이런 기도 가운데 강대상, 마이크, 커튼, 피아노 등 필요한 성물이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성전 기물과 재정을 채워주셨을 뿐 아니라 교세도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하여 열세 명이 개척예배를 드렸는데, 77일 후에는 열 평 남짓한 성전에서 100명이 넘는 성도가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요. 만 5년이 채



창립예배 (1982.10.10.)

안 돼서는 등록 교인이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틈도 없이 성전은 가득 찼습니다. 그때마다 극적으로 성전을 넓혀 이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요.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권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의 양 떼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각 선교회와 기도제물, 봉사대, 성가대, 예능팀 등 각종 조직과 기도원 등 부설 기관의 초석이 되었지요.

1980년대에는 무엇보다도 영적 기반이 되는 성경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천국, 요한계시록, 율기, 영혼육, 성경 곳곳의 난해 구절 등 신앙생활 기초 말씀부터 깊이 있는 말씀까지 풀어 주셨지요. 이는 7년간 쌓은 무수한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주옥같은 말씀들이 지금까지 세계 곳곳의 무수한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꽃대가 되는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만민'이라는 이름에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담아주셨습니다. 둘째로 대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셨지요. 열 평 남짓한 성전 안에서 17명의 성도들에게 환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대성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영적인 말씀, 기사와 표적이 넘치자 전국 곳곳에서 저를 부흥성회 강사로 초청했습

니다. 또한 라디오 기독교 채널을 통해 전국에 간증과 설교가 방송되었지요.

2. 영육 간에 성장 이루며 활발한 국내외 선교

축복의 연단이 새로운 시기를 알렸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가만두지를 앓았지요.

1990년 어느 날, 당시 속해 있던 교단의 총회 회원들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고 저에게 목사 파직을 선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당한 일을 목도한 목사님들은 안타까워하며 저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크게 성장하니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선배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예’ 하고 한마디만 답변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불의와 타협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여파로 저는 그 무게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짐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저와 교회는 이 사건의 주동자를 용서했습니다.

오직 선으로 시험을 통과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단을 창설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차원이 아닌 교단 차원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하셨지요. 국내 교계 행사와 정계 행사 곳곳에 초청받아 순서를 담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 봉사대원들과 안내위원들, 성가대와 닥시오케스트라 등 일꾼들이 봉사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마음껏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민족복음화에 앞장서니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희를 칭송하였지요.

얼마 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에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해외에까지 알려져 미국 LA, 워싱턴, 볼티모어, 하와이, 일본, 남미, 아프리카 등에 초청받아 성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만민선교센터가 세워지는 등 세계 선교의 문도 열리기 시작했지요.

또한 1990년대에만 두 번의 성전을 확장 이전해 지금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열면서부터는 수많은 환자가 치료받아 영광 돌렸습니다. 이 가운데 한 주 새교우가 4~5백 명 이상 등록된 적도 있었지요. 이처럼 1980년대와 차원이 다른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양적인 성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알곡이 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1990년대 말, 알곡과 쫄정이를 가르고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세 번의 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차례 시험을 거치면서 세계는 이전보다 더 큰 권능을 주셨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1995 여의도 광장 광복 50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제단답게 육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보며 심히 애통했지만 저와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대항치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오직 선으로 행했지요. 이처럼 선으로 시험을 통과한 결과 맺힌 열매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3.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

2000년에는 전남 무안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바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간다 성회를 시작으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세계를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 당시 유대인들이 배척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것처럼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사역도 국내에서 해외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세 차례의 큰 시험은 해외 선교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저와 성도들은 진액을 다해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세계를 일켰습니다.

우간다,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에서 대형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만,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인파가 운집했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이 증거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았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어둠이 물러갔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지요. 우상이 깨어지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마침내 땅끝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3년간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결과, 기독교인뿐 아니라 극정통 유대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방송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04년에는 만민TV를 중심으로 세계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인 GCN이 결성되었고, 이듬해 뉴욕 공중파 채널 17을 통해 첫 방송이 송출되었지요. 이외에도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인 WCDN과 만민국제신학교 MIS가 조직되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61개 언어로 번역, 발간된 책은 직접 찾아가지 못한 곳까지 전 세계 구석구석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4. 모든 섭리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하나님

만민은 그동안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힘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했지요. 이는 풍성한 축복을 거두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관하신 일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에스토니아 연합성회'가 개최돼 복음이 침체된 유럽을 일깨웠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확인하며 마지막 때의 하나님 섭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교 포털 사이트 '인빅토리'와 영어권 기독교 포털 사이트 '크리스천텔레그래프'에서 2년 연속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 10인'에 선정,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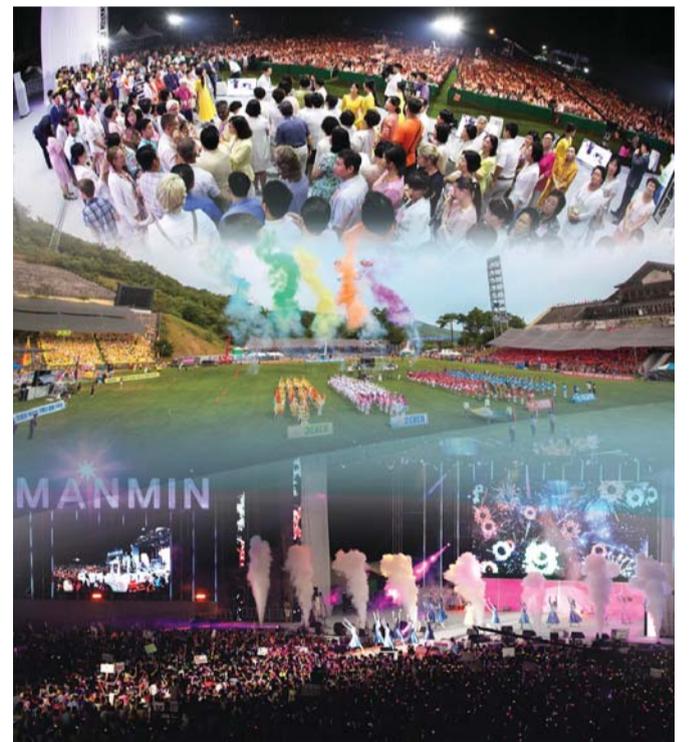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2010년부터 급속한 영의 흐름을 허락하시며 성도들이 신속히 죄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닦고자 부단히 힘쓰며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2013년부터 매년 열린 전 성도 만민하계수련회에서는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 성도들의 풍성한 응답과 치유의 역사는 물론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축복의 장이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많은 총회장과 주의 종, 성도들이 참석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방송을 통해 참여한 이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은혜의 간증이 넘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취한 손수건을 통해 악귀가 나가고 각종 질병이 떠났던 것처럼(행 19:11~12), 제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 세계 선교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케냐, 이스라엘, 파키스탄, 콜롬비아, 인도 등 전 세

계 곳곳에서 손수건 집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으며, '십자가의 도'를 비롯한 저의 설교들을 주제로 해외 곳곳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일꾼 교육도 계속돼 생명의 말씀으로 전 세계 영혼들을 깨우며 진리의 등불을 밝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인터넷과 방송, 유튜브, 책자와 만민뉴스를 통해 저의 설교를 접하고 은혜받은 뒤 삶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의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우리의 삶에 깊고 세밀하게 관여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무수한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자녀로 끊임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연단 또한 장차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는 지름길임을 확신합니다.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 속에서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은 알곡 중의 알곡으로 나오고 있지요.



2018 만민하계수련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까지 이 제단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창대히 이뤄지며 권능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 또한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37년 동안 만민의 역사를 친히 인도해 오신 사랑의 삼위 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37년 기념 평화통일 회년대회



1999 제7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본당)





생명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덮어간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순수복음방송 GCN

방송 매체가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라는 확신 가운데, GCN방송은 2005년 10월 10일에 개국하였다. 미국 뉴욕의 공중파 채널 17을 통해 첫 전파를 쏘아 올린 이후 세계 우수 방송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꾸준히 커버리지를 확장해 왔다.

세계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생명력 있는 콘텐츠

현재 코리아셋5, 앱스타5, 아시아셋5 위성을 사용해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우수 방송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중파, 위성, 케이블 등으로 세계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기도, 간증, 찬양 등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GCN방송 프로그램은 일반 방송 프로그램과 현격한 차별화를 이룰 뿐 아니라 공연, 교양,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갖추어져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치유와 응답의 간증 속에 빠르게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을 비롯한 설교와 '환자기도'를 통해 치유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간증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게 됐다는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며, 지·협력교회들도 늘고 있어 그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GCN방송(www.gcntv.org)은 KT 올레TV 882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이 되는 곳은 세계 어디서나 로쿠(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이재록 박사님의 사역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르게이 벨보베츠 (캐나다 인빅토리 미디어 그룹 회장)

저는 200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이재록 박사님의 성회에 참석해 그곳에서 놀라운 사역을 목도했습니다. 그 뒤 저희 웹사이트와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만민의 사역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빅토리 웹사이트는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교 포털 사이트로 60여 개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를 위해 만민중앙교회를 여러 번 방문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만민의 사역을 알리기도 하였지요.

저 또한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를 통해 제 둘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둘째 아이 임신 당시, 태아의 움직임이 며칠간 느껴지지 않아 만민중

양교회에 연락해 박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다시 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지요.

◆

박사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시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헌신을 하고 계셨고, 성도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삶 전부를 희생하는 목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사역을 위한 목표와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셨기에 저는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기사화했습니다.

지금도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는 전 세계에 방송되어 기독교계와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의 선한 사역에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간증이 접수되고 있지요. 그들은 이처럼 큰 헌신과 사역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민의 사역은 기독교계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고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있지요. 위대한 만민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뤄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곳곳에 지성전, 지교회 세우는 GCN방송 시청자들

GCN방송이 복음 전파에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 엔라세, TBN러시아 등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 채널로 GCN방송의 생명력 넘치는 콘텐츠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체험한 시청자들이 만민의 사역을 주변에 전함으로 해외 곳곳에 가정교회, 지성전, 지교회를 세우며 세계 선교를 활발히 이루고 있는 것이다.

TBN러시아 통해 '지옥' 설교를 들은 후... 가정교회, 지교회, 교단까지



2009년 10월경, 러시아어 위성방송인 TBN러시아를 통해 들은 이재록 목사님의 '지옥' 설교는 제게 큰 충격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후 TV뿐 아니라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인빅토리 등을 통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정리하며 술, 담배를 끊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자 2014년 4월, 9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명쾌하게 풀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니 사람들은 계속 모여 들었지요.

그러던 5월경, 저의 어머니가 급성 폐성심으로 6주 안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으신 뒤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해 10월부터는 성전을 임대해 이후 70여 명의 성도가 함께하는 지교회로 성장했으며, 2019년 3월 복음주의 교회 연합 교단 '만민'으로 정부에 교단을 정식으로 등록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엔라세 방송으로 '십자가의 도' 설교 듣고 새롭게 거듭나 지성전 이루며 축복받아



2015년 어느 주일 아침, 엔라세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재록 목사님에 관해 더 알고 싶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10여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단순한 명설교가 아니라 매우 영적인 말씀이며 살아 있는 말씀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지교회인 콜롬비아만민교회에 다니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리하여 2018년 2월에는 소가모소에 지성전을 세우게 되었지요. 현재는 25명의 성도가 함께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잘될 뿐 아니라 당회장님의 환자기도 영상과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도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으며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고 있지요. 저희는 만민을 만난 뒤 행복합니다.



손수건 기도로 성령의 역사 체험 후 유튜브 'GCNTV HINDI' 통해 예배 드리며 가정교회 이뤄



저는 텔리만민교회에 출석하던 중 화상을 통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심각한 허리 통증을 치료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주님을 만난 뒤 모든 삶이 변화된 것처럼 고향 사람들도 그렇게 되길 바랐지요.

그러던 2018년 5월, 고향을 방문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있음을 알려 주면서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주 모여 유튜브 'GCNTV HINDI'를 통해 만민중앙교회의 예배를 드리며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도 함께했지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 영상과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치료뿐 아니라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제 조카 아나타도 기도받은 뒤 귀신이 나가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책 속에 녹아든 주님의 사랑, 우림북(Urim Books)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은 현재 112권이 출판됐으며, 이를 61개 언어로 번역해 현재 522종이 발간됐다. 58개 언어로 발간된 551종의 전자책도 아마존킨들, 애플 아이북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 저서들에는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풀이받은 생명의 말씀들이 담겨 있어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적 지침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서울 링콘 부사장 (엔라세 콜롬비아 방송)



이재록 박사님의 신앙서적들은 매우 감명 깊고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스테피 메린 자매 (파키스탄)



저희 가족은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와 『십자가의 도』 책자를 읽으며 큰 은

이석철 장로 (구미만민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교 말씀을 통해 깊은 영의 세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재록 박사님의 신앙서적들은 매우 감명 깊고 인상적입니다”

되시는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는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며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책자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단계에 이르러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행복을 생생하게 묘사한 『천국』(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좋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지요. 이 박사님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도 매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지옥』 책자는 사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깨닫게 해 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이 박사님의 저서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건설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박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모든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책자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혜를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이재록 목사님을 부르셨는지 그 과정을 보며 감동되었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섭리들을 깨우치며 감명 받았지요. 이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저와 언니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들을 더 배우고 싶어서 온라인을 통해 MIS(만민국제신학교) 과

정을 수강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비밀한 섭리를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CN방송을 시청하며 큰 은혜를 받아 저희 지역에도 이런 훌륭한 설교와 영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전하고자 케이블을 통해 GCN방송 프로그램을 송출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도 우르두어로 동시통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뿐 아니라 무슬림도 응답 받고 질병을 치료받아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책 속에 제 삶을 변화시킨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제 삶을 변화시켰고, 성결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져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저는 당회장님의 서적을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저서는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당회장님 책이 나오면 바로 구입하여 읽었고, 많이 구입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지요. 서평단 활동도 열심히 한 듯합니다.

서평단 활동은 당회장님의 저서를 정리하고 널리 알리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귀한 성결의 말씀은 혼탁한 이 세상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스럽게 풀어져 인생들의 삶을 참된 길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회장님께서 오랜 금식과 기도로 풀이받은 보화와 같은 말씀들이지요. 그 영롱한 보화가 저서에 가득 담겨 있으니 어찌 알리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아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943, 010-2213-207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3430-3312